올 기업 이익 "두자릿수 증가" Vs "증가율 둔화"

"160개 주요 상장사 영업익 24% 늘 것"

"미 경기침체 등 성장 둔화 불가피" 맞서

올해 상장기업의 이익 증가율 전망을 놓고 치열한 의견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기업의 펀더멘털이 견조한데다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의 수요로 이익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미국 경기침체,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증가율 둔화를 점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 "올해 기업 이익 큰 폭으로 늘 것" = 26일 대신증권과 기업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증권사 실적 전망에 따르면 올해 163개 주요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23.6% 증가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의 성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점쳐진 업종은 올 상반기 업황이 바닥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IT업종과 중국 수혜주로 분류되는 조선, 해운, 기계, 화학 등의 업종이다. 디스플레이업종은 올해 206.8%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며 전자부품업종도 81.5%의 고속성장을 누릴 전망이다.

조선(57.0%), 해운(49.2%), 기계(34.5%), 화학(30.6%) 등의 중국 수혜주도 이에 못지 않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반면 은행, 통신서비스, 철강금속 등은 올해 10%대의 이익 증가율을 보여 다소 저조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대신증권의 박주환 애널리스트는 "최근 기업 실적 추정치가 다소 하향조정 되긴 했지만 기업 실적의 펀더멘털을 심하게 훼손시키지 않는 수준이어서 올해 기업 이익의 성장세는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美 경기침체 등으로 성장 둔화 불가피" = 반면 미국의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올해 기업 이익이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들의 우려는 무엇보다 최근의 원자재 가격 급등에서 비롯된다.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WTI 기준)를 넘나드는 고유가로 인해 전반적인 산업의 기초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다 철광석, 비철금속, 곡물 등 산업용 소재나 재료로 쓰이는 대부분의 원자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과 유럽의 경기둔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수출 제품의 수요는 지난해처럼 견조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깊다.

지난달 수입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2% 상승해 1998년 10월 이후 9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반면 수출물가는 5.8% 오르는 데 그쳐 수입물가와 수출물가의 차이가 지난해 말부터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출생아 수 2년째 늘었다

작년 쌍춘년 여파 50만명 육박

제 3차 베이비붐 효과와 쌍춘년(雙春年), 황금돼지해 등의 영향이 겹치면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늘어났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도 4년만에 10명을 넘어섰고, 여자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도 2005년 저점을 찍은 뒤 2년째 상승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총 출생아 수는 49만7천명으로 전년(45만2천명) 보다 4만5천명 증가했다. 이는 2006년(1만3천명)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출생아수는 1994년 72만9천명 이후 계속 줄어들다 '밀레니엄 베이비 붐'이 일었던 2000년 63만7천명으로 반짝 늘어났지만 다시 2001년 55만7천명, 2002년 49만5천명, 2003년 49만3천명, 2004년 47만6천명, 2005년 43만8천명 등으로 계속 감소했었다.

출생아 증가로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지난해 10.1명으로 2003년(10.2명) 이후 4년 만에 10명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수입 유전자 변형 옥수수 팝콘·식당용 자재로 사용

식약청 밝혀

최근 국내에 수입된 유전자조작 옥수수는 팝콘용과 중식당 식자재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국내 수입된 옥수수 가운데 유전자재조합(GMO) 가능성이 있어 GMO로 표시된 옥수수는 총 111t에 달했다.

지난해 수입된 GMO 옥수수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각각 60t과 39t이 들어왔으며 앞서 2006년에는 미국으로부터 12t이 수입됐다. 미국산 GMO 옥수수는 모두 팝콘용으로 수입됐으며 중국산은 '채소믹스' 상태로 수입돼 중국음식점에서 식자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 당시 GMO로 표시된 작물은 GMO농산물이 실제로 포함돼 있거나 GMO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GMO일 가능성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즉석에서 조리해서 제공되는 팝콘이나 중국음식은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GMO 작물이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대상·두산CPK·삼양제넥스·신동방CP 등이 전분·전분당 원료용으로 GMO 옥수수 5만여t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여오기로 함에 따라 GMO 표시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5억짜리 시계 서울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이 26일 스위스 시계 브랜드 '브레게(Breguet)'의 '레인 드 네이플(Reine de Naples) 시계 전시회'를 열고 다이아몬드 35.7캐럿, 블루 사파이어 12.83캐럿으로 장식된 '블루 사파이어'(싯가 5억7천만원)를 공개해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들 투자 증가 어렵다"

수익성 안좋은 기존 사업 투자 확대땐 재무구조 더 악화

LG경제연구원 보고서

경영환경의 개선없이 국내기업의 투자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국내기업 중 가치창출기업의 비중이 36.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은 26일 '기업가치제고를 위한 성장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은 기존 사업의 수익성이 높지 못해 투자를 확대할 경우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영환경의 개선없이 투자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이 2000년 이전 상장된 12월 결산 비금융회사 468개를 대상으로 가치창출능력을 분석한 결과 2006년 기준 가치창출기업의 비율은 36.1%에 불과했다.

2000년대 들어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창출활동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진했는데, 2000년 26.7%에 그쳤던 가치창출기업의 비중은 2004년에는 절반 정도 가량으로 증가했다가 2004년 이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 2006년 36.1%에 이르렀다.

이같은 결과는 여전히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많아 저수익성 자산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크게 늘리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영업활동에서의 수익성이 자본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경우 비록 성장세 수준은 낮더라도 외환위기 이전과 같은 과잉투자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같은 기업들을 상대로 기업가치와 성장성 및 수익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수익성이 성장성보다 기업가치 변화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韓銀 "경기하향보다 물가상승 위험이 더 크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기 하향 위험보다 물가상승 위험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개된 제2차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1월10일 개최)에 따르면 한은 실무부서는 "당분간 미국 경제가 둔화하더라도 여타 교역국가의 경제가 급격히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유류세 및 통신비 인하 방안도 그 실현 시기와 인하 폭이 불확실하다"며 "올해 중에는 물가의 상향 리스크가 경기의 하향 리스크보다 조금 더 큰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금통위원이 국내외 경제동향과 관련해 "유류세 및 통신비 인하 방안이 실현되면 물가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국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기의 하향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설명이다.

한은 집행부의 의견은 금통위원들이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참고사항이 된다. 또 지난 1월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콜금리 동결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1월 금통위 회의 직후 이성태 한은 총재가 "올해는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과 물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콜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그린스펀 "美 경기침체 과거보다 더 심각할 수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경우 그 정도가 과거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25일 미국의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과거 2차례의 침체 때보다 그 정도가 심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이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현재 금융분야의 문제가 전에 우리가 잠시 겪었던 것에 비해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침체가 과거의 2차례의 경미한 침체보다 깊다고 해도 놀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전에는 33% 정도에서 최근에는 50% 이상으로 높이기도 한 그린스펀 전 의장은 이 같은 발언은 경기침체의 타격이 1991년과 2001년의 침체기보다 클 것임을 우려하는 것으로,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도 최근 경기침체가 오면 과거보다 기간이 길고 고통도 클 것이라고 밝혔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주택가격의 붕괴와 신용시장의 위기가 실물경제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기침체는 그 근원과 성격이 과거 경기침체와 다르다면서 그 심각성을 우려했었다.

SK텔레콤 '11번가' 오픈마켓 시장 진출

이동통신업계 1위 SK텔레콤이 온라인 오픈마켓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SK텔레콤은 26일 유·무선을 아우르는 상품구매는 물론 재미와 쇼핑정보 공유까지 가능한 신개념 온라인 쇼핑몰 '11번가'(www.11st.co.kr) 론칭을 공식 발표하고, 27일 오전 11시 11분 개장한다고 밝혔다.

'모닝 365', '네이트몰' 등 온라인 쇼핑몰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SK텔레콤은 '11번가'로 유통 사업을 확대, 올해 거래액 6천억원을 달성해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한다는 계획이며 내년에는 거래액 1조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SK텔레콤은 차세대 온라인 쇼핑몰 '11번가'(www.11st.co.kr)를 27일 오전 11시11분 개장한다. 사진은 개장에 앞서 모델들의 시연 모습.

"맞벌이·저소득층 보육지원 절실"

KDI, 시설 이용률도 낮아

우리나라의 보육지원정책은 맞벌이 여부나 소득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취업여성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시설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윤영·김정호 부연구위원은 26일 발간한 '영유아 보육, 정부의 역할은?' 보고서에서 현재의 보육지원정책은 정부의 과다한 개입과 잘못된 제도 설계로 인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보육지원정책이 여성인력의 활용과 양질의 인적자본 형성이 중요한 인구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비용을 줄여주며 아동발달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용한 정책이라면서 제도의 설계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인센티브를 부여,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출산유인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책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보조금제도로 인해 정부 보조금 수혜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엄마가 취업중인 경우는 42.9%로 절반도 되지 않으며 전체의 21%는 가구소득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라고 밝혔다. 또 2007년을 기준으로 영유아 아동의 시설이용률은 상위 80% 계층인 2~5분위가 72~81%나 되는 반면 소득 최저계층인 1분위는 59%에 불과 오히려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 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유니스전자㈜	정규직 제조부분 간부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6	062-955-1532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 전문금융영업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7	062-654-8101
KJ일본어전문학원	문서작성, 상담사원/ 일본어학원 강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8	011-9074-3723
㈜인산 광주공장	자체 브랜드 개발 및 삼성광주전자 부품 개발	대졸/경력무관	1800~2000	02/28	062-955-1609
㈜전통	경리 보조 및 출납 업무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2/28	062-527-6611
고려시멘트㈜	공정관리 신입 및 경력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9	062-519-1562
㈜이공하이텍	전기공사 공무 담당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9	010-3021-6060
㈜한국선냉	수산물 가공 공장 총 지휘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9	061-662-1449
㈜광주광역정보센터	서버관리자/프로그래머 정규직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9	062-224-8564
한일튜브㈜	품질부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2/29	062-958-3420
㈜현대코리안	가구상판 생산업무 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3/03	062-956-6852
길맨의원	[길맨 남성 클리닉] 간호사업무 및 기타서비스업무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3	062-369-5855
㈜현성테크노	프레스 주물 R&D 및 자동차 부품 개발 인력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5	062-942-6251
㈜한국번디	[평택/광주]국내외영업 및 R&D 신입, 경력 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5	031-662-3335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보험 가입시 할인 등 특이사항 확인 권고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에 가입할 때 건강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 등 여러 특약사항들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우량체 할인 특약'의 경우 담배를 피우지 않고 혈압수치, 체중·신장비율 등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남자는 보험료의 7%, 여자는 6%를 할인해준다. 보험에 가입할 때 뿐 아니라 가입한 후에도 우량체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서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A사의 경우 우량체 할인 조건으로 가입 직전 1년간 비흡연 및 최대 혈압치 110~139mmHg 등을 들고 있다. 이와 함께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도 있다. 다만 보험 기간에 가입자가 30일 이상 흡연을 한 경우에는 할인받은 만큼의 보험료를 이후에 내야 한다. /연합뉴스